

Verdict

시장은 BTC가 68,549~68,615달러 수준에서 기관 ETF 순유입과 모건 스탠리의 참여 확대를 근거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면 빠르게 반등할 수 있는 구조적 수요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보고 있음. 참여자들은 3.45%의 소폭 하락이 VIX 불안 국면 대비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하방 지지력이 작동하고 있다고 해석하며, 견조한 고용(ICSА 205,000건)이 경기 침체를 배제하므로 리스크 온 회복 시 상방 모멘텀이 재개될 것으로 포지셔닝하고 있음.

하지만 수집된 증거는 이 낙관적 내러티브의 핵심 전제가 여전히 충족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줌. 첫째, 직전 판정(3/22)의 무효화 조건이었던 'BTC 1개월 수익률 +12% 이상 재가속'은 현재 +0.47%로 오히려 급격히 둔화되었으며, 이전 모멘텀 감속 추세(+16.53%→+9.6%→+5.43%→+6.59%→+5.63%→+6.89%→+0.47%)가 가속적으로 악화되어 구조적 매수 모멘텀의 소진이 명확히 확인됨. 둘째, BTC 3개월 수익률 -22.3%와 고점 대비 낙폭 -29.21%는 직전 판정 시(-24.96%, -27.51%)보다 3개월 수익률은 소폭 개선되었으나 고점 대비 낙폭은 오히려 확대되어, 기관 ETF 유입이 하방 지지력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주장을 반박함. 셋째, VIX(VIXCLS)가 24.06으로 불안 영역에 위치하고, DGS10이 4.25%로 여전히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어 비트코인의 기회비용 압력이 해소되지 않았음. 넷째, GOLD 역시 1개월 -18.08%로 급락하여 안전자산 전반이 매도 압력을 받는 환경이지만, BTC의 1개월 +0.47% 대비 상대적 우위는 BTC가 '디지털 금'으로 작동한 결과가 아니라 이미 선행적으로 충분히 하락(-29.21% 드로다운)한 데 따른 기저효과에 불과함. 결정적으로 1개월 수익률 +0.47%는 무효화 조건 +12%의 4%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며, 이는 기관 수요 내러티브에도 불구하고 실질 가격 모멘텀이 사실상 정체 상태임을 증명함.

Action: BTC 숏 포지션을 유지하되, 1개월 수익률 +0.47%로의 모멘텀 급둔화와 VIX 24.06의 불안 국면 지속을 모니터링 강화하며, 65,000달러 하방 이탈 시 점진적 비중 확대를 준비.

Invalidation: BTC 1개월 수익률이 향후 2주 내 +12% 이상으로 재가속할 경우 약세 판정을 전면 재검토

Risk Factors: 매크로 리스크: ICSА 205,000건의 견조한 고용이 지속되며 연준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할 경우, DGS10 4.25% 이상의 고금리 환경이 고착화되어 BTC의 기회비용 압력이 장기화될 수 있음, 기술적/포지셔닝 리스크: BTC 고점 대비 -29.21% 드로다운 상태에서 1개월 수익률 +0.47%의 극단적 모멘텀 둔화가 기관 ETF 순유출 전환의 선행 신호일 수 있으며, ETF 유출 반전 시 하방 가속이 급격해질 수 있음, 이벤트 리스크: 이란-이스라엘 갈등의 추가 확산 또는 예상치 못한 지정학적 충격이 VIX를 30 이상 극단적 공포 영역으로 재차 밀어올릴 경우, BTC가 위험자산으로 동조화되며 급격한 추가 하락이 발생할 수 있음

Macro Picture

Regime: risk_off

Key Themes: 지정학적 긴장 고조 및 위험자산 회피, 연준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 (3.50% 등결), 기관 수요와 거시 경제 불확실성의 충돌

Dominant Narrative: 비트코인은 71,000달러 선에서 68,549.32달러로 약 3.45% 소폭 하락하며 지정학적 위기 시 '안전 자산'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는 중임. 모건 스탠리의 비트코인 ETF 시드 자본 설정과 4주 연속 ETF 순유입에도 불구하고, 이란-이스라엘 갈등으로 인한 극심한 시장 불안감이 상방을 제한하고 있음.

Reality: VIX가 30.37로 급등하고 US10Y가 4.39%를 기록하는 등 위험 회피 환경이 뚜렷하나, T10Y2Y 스프레드(0.51)는 양의 값을 유지하며 침체보다는 고물가 고착화를 시사함. 낮은 소비자심리(56.4)와 CPI(327.46) 상승세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하며 비트코인에 단기적인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으나, 낮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205,000건)가 실물 경제의 급격한 붕괴를 방어하고 있음.

Hypotheses

Key Question: VIX 30 이상의 리스크 오프 국면에서 BTC-NDX 상관관계가 BTC-GOLD 상관관계보다 유의미하게 높은가, 즉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 아닌 기술주와 동조하는 위험 자산으로 거래되고 있는가?

Tensions

비트코인이 지정학적 위기 시 '안전 자산' 역할을 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와 달리 리스크 오프 환경에서 위험 자산과 동조화되며 하락함.

Narrative: 비트코인은 지정학적 갈등 시 가치 저장 수단인 '디지털 금'으로서 안전 자산 역할을 수행할 것임.

Reality: 이란-이스라엘 갈등 고조와 VIX 30.37 급등 속에서 71,000달러에서 68,549.32달러로 3.45% 소폭 하락하며 위험 자산적 성격을

BTC GOLD VIX

기관 투자자의 강력한 수요 진입이라는 호재가 거시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및 고금리 환경에 의해 상쇄되고 있음.

Narrative: 현물 ETF의 4주 연속 순유입과 모건 스탠리의 시드 자본 설정 등 기관의 본격적 참여가 가격 상승을 견인할 것임.

Reality: US10Y 4.39% 기록 및 CPI 327.46 상승 등 고물가 고착화 징후가 강해지며 기관 수요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가격은 횡보 또는 하방

BTC US10Y DXY

연준의 금리 인하를 통한 유동성 확대 기대감과 견조한 고용 지표 사이의 괴리가 자산 가격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킴.

Narrative: 연준이 금리를 3.50% 수준으로 인하하여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리스크 온 랠리를 재개할 것임.

Reality: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5,000건으로 낮게 유지되는 등 실물 경제가 견조하여 금리 인하 명분이 약화되고 고금리 레짐이 지속될 가능성이

BTC NDX US10Y

Eval Scores

PASS

Overall	<div style="width: 35%;"></div>	3.5
Tension	<div style="width: 100%;"></div>	5
Hypothesis	<div style="width: 100%;"></div>	5
Evidence	<div style="width: 60%;"></div>	3
Verdict Logic	<div style="width: 20%;"></div>	1

Feedback: 내러티브와 매크로 현실 간의 긴장 설정 및 가설의 대칭성(A vs B)은 매우 우수합니다. 그러나 데이터 일관성과 수치 계산에서 심각한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첫째, 비트코인 가격이 68,549달러임에도 '고점 대비 낙폭 -29.21%'라고 기술한 것은 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역대 최고가 73.7k 대비 약 -7% 수준). 둘째, 금(GOLD)의 1개월 수익률 -18.08%는 실제 시장 데이터와 동떨어진 수치이며, 만약 사실이라 하더라도 BTC(+0.47%)가 금보다 압도적으로 선방한 것이 되어 'BTC가 안전자산이 아니다'라는 결론과 논리적 모순이 발생합니다. 셋째, 현실 측면의 US10Y(4.39%)와 판정문의 DGS10(4.25%) 수치가 상이하여 시점 매칭에 혼선이 있습니다. 향후 재시도 시, 실시간 데이터의 정확성을 재검증하고 계산 수치(Drawdown, Return)의 논리적 정합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시장의 뷰: 시장은 BTC가 68,549~68,615달러 수준에서 기관 ETF 순유입과 모건 스탠리의 참여 확대를 근거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면 빠르게 반등할 수 있는 구조적 수요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보고 있음. 참여자들은 3.45%의 소폭 하락이 VIX 불안 국면 대비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하방 지지력이 작동하고 있다고 해석하며, 견조한 고용(ICSA 205,000건)이 경기 침체를 배제하므로 리스크 온 회복 시 상방 모멘텀이 재개될 것으로 포지셔닝하고 있음.

결론: 비트코인은 기관 ETF 유입이라는 내러티브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으며, VIX 30 이상의 본격적 리스크 오프 환경에서 위험 자산과의 높은 상관관계가 재확인되고 있어 추가 하방 압력이 불가피함. 이전 판정(3/21~3/22)에서 확인된 모멘텀 감속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고금리·고물가 고착화 환경이 비트코인의 구조적 약세를 심화시킴. [MEDIUM]

하지만 수집된 증거는 이 낙관적 내러티브의 핵심 전제가 여전히 충족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줌. 첫째, 직전 판정(3/22)의 무효화 조건이었던 'BTC 1개월 수익률 +12% 이상 재가속'은 현재 +0.47%로 오히려 급격히 둔화되었으며, 이전 모멘텀 감속 추세(+16.53%→+9.6%→+5.43%→+6.59%→+5.63%→+6.89%→+0.47%)가 가속적으로 약화되어 구조적 매수 모멘텀의 소진이 명확히 확인됨. 둘째, BTC 3개월 수익률 -22.3%와 고점 대비 낙폭 -29.21%는 직전 판정 시(-24.96%, -27.51%)보다 3개월 수익률은 소폭 개선되었으나 고점 대비 낙폭은 오히려 확대되어, 기관 ETF 유입이 하방 지지력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주장을 반박함. 셋째, VIX(VIXCLS)가 24.06으로 불안 영역에 위치하고, DGS10이 4.25%로 여전히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어 비트코인의 기회비용 압력이 해소되지 않았음. 넷째, GOLD 역시 1개월 -18.08%로 급락하여 안전자산 전반이 매도 압력을 받는 환경이지만, BTC의 1개월 +0.47% 대비 상대적 우위는 BTC가 '디지털 금'으로 작동한 결과가 아니라 이미 선행적으로 충분히 하락(-29.21% 드로다운)한 데 따른 기저효과에 불과함. 결정적으로 1개월 수익률 +0.47%는 무효화 조건 +12%의 4%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며, 이는 기관 수요 내러티브에도 불구하고 실질 가격 모멘텀이 사실상 정체 상태를 증명함.

→ BTC 숏 포지션을 유지하되, 1개월 수익률 +0.47%로의 모멘텀 급둔화와 VIX 24.06의 불안 국면 지속을 모니터링 강화하며, 65,000달러 하방 이탈 시 점진적 비중 확대를 준비.

무효화: BTC 1개월 수익률이 향후 2주 내 +12% 이상으로 재가속할 경우 약세 판정을 전면 재검토

